

문영숙의 꼭 알아야 할 항일독립운동가 최재형

<10> 교육가로 32개의 한인 학교를 세우다



문영숙
독립운동가 최재형
기념사업회 이사장

박환 교수의 저서 ‘시베리아 한 인민족운동의 대부 최재형’에 있는 독립신문 1920년 5월 15일자 <최재형 약력>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아령에 있는 한인의 교육은 처음 최재형씨의 편달을 받아 일어난 것이요, 최재형씨가 거주하는 안치혜는 아령의 한인 거주지 중에서 제일 먼저 러시아 교육을 받았다” 라고 하여 최재형이 재러 한 인교육을 처음으로 강조하며 한인 교육을 일으킨 장본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안치혜 지역에 한인이 이주하기 시작한 해는 최재형이 태어난 1860년대 부터인데, 처음에는 열악한 경제사정으로 교육은 생각할 겨를도 없을 만큼 생계가 어려웠다. 러시아 지방당국은 1883년에 안치혜 지역에 러시아어 학교를 설립하고 한인자녀들을 교육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러시아와 교육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실제로 학령기가 된 아이들을 모집할 때, 한인들은 궁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이를 기피하거나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심지어 자기 자식들을 러시아 학교에 보내기를 꺼려해서 남의 아이를 대신 보내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최재형이 도현에 취임하기 전인 1891년, 최재형은 안치혜에 정교회 학교를 설립했는데, 니콜라예프스키 소학교라고 불린 이 학교는 한인마을에 세워진 대표적인 러시아식 한인학교였다. 최재형은 이 학교의 가난한 학생들을 위하여 2,000 루블을 후원했다.

안치혜 한인들 중에 니콜라예프코에 소학교를 졸업한 많은 학생들은 상급학교에 진학했다. 최재형은 이들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주었는데, 장

학금을 받고 사범학교에서 공부한 졸업생들은, 후에 니콜라예프코 모교에 돌아와 교사로 활동했다. 또 다른 학생들은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러시아군 장교로서 러시아 사회에 공헌하기도 했다.

1893년 도현에 임명된 직후 최재형은 향산사에 러시아 정교회와 학교를 설립했다. 또 안치혜에 우신학교를 설립하고, 교장이 되어 도현 생활을 하면서 학교도 운영했다.

러시아 정부는 이러한 최재형의 공로를 인정하여 1902년 교회헌당식이 거행되었을 때 최재형에게 금메달 훈장을 수여했다. 또한 니콜라예프스코에 소학교는 1899년 하바롭스크에서 개최된 박람회 교육부분에서 장려상을 수상했고, 연해주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 최우수 소학교로 평가를 받았다.

이후에도 최재형은 계속적인 교육사업으로 한인들이 거주하는 마을마다 정교회 교구학교를 설립하여, 1890년대 말에는 연해주 지역의 32개 한인마을에 러시아 소학교가 설립되었다.

또한 최재형은 안치혜에 6년제인 고등소학교를 설립하여 학생들의 교육에 전력했으며, 고등소학교를 성공적으로 졸업한 학생들 중에 우수한 학생을 골라, 블라디보스토크, 우수리스크, 블라고베센스크, 이르쿠츠크, 톰스크 및 기타 지역에 유학을 보냈다. 최재형은 이 유학생들 중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 한 명을 선발해, 도현으로 받는 3000루블의 봉급을 전부 은행에 넣어두고, 그 이자로 매년 러시아에 유학을 보냈다고 한다. 그 결과 다수의 학생들이 러시아의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떠났는데 대표적인 인물로 한 명세, 김 미하일 미하일로비치, 최 레프 페트로비치, 김 로만 이바노비치, 김 야코브 안드레예비치 이다.

최재형의 이러한 교육장려 활동은, 한인들에게 희망의 씨앗이 되었고, 한인들로부터 더욱 더 존경을 받게 되었다. 한인들은 최재형의 사진을 집에 걸어놓을 정도로, 그를 존경했다고 한다.

그러나 점점 늘어나는 한인들의 교육을 최재형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래서 최재형은 한인들과 함께 교육기금을 만들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키로 했다.

마침 그 무렵 러시아 극동에 많은 숫자의 육군 및 해군이 주둔하게 된다. 최재형은 이 군인들이 필요로 하는 식량, 군복, 건재등을 공급할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교육기금을 만들 생각이었다.

이로서 최재형은 교육자에 이어 동양의 카네기라 칭할 만큼 거대한 부를 이루는 기업가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최재형은 이처럼 한인마을마다 교회와 학교 건물을 지었고, 학교 교사와 정교회 사제를 위한 건물도 지었다. 최재형이 안치혜 마을에 벽돌로 지은 건물들은 매우 견고하고 넓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최재형이 세운 많은 학교들은 1937년에 고려인들이 스탈린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를 당한 후,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건물은 이미 사라졌고 건물터에 나뭇구멍은 붉은 벽돌들이 그 자취를 증언하고 있다.

필자가 2012년, 우수리스크를 방문했을 때 한인들이 살던 마을에 있는 학교를 방문한 일이 있다. 물론 그 학교는 당시 최재형이 지은 학교는 아니었지만, 교장실 옆에 조촐하게 고려인박물관을 만들어 당시 고려인들이 쓰던 농기구와 생활잡기들을 전시해놓고 있었다.

그 후 2019년 필자가 MBC 다큐팀과 함께 촬영을 위해 추카노보 마을(구 안치혜)에 갔을 때 마을 사람들의 안내로 당시 학교터를 찾아갔다. 무성한 수풀 속에 빨간 벽돌이 수없이 널브러져 있었고 학교 건물의 기반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서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다. -계속-

〈참고서적〉
박환 교수의 <시베리아 한인 민족운동의 대부 최재형>
문영숙의 <독립운동가 최재형>

리채운의 신사임당의 자녀교육법<10회>

신사임당을 만든 또 한 사람 ‘한량남편 이원수’



리채운
도서출판 작가교실 대표

이원수는 우유부단하고 자기 주관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 같지만 장인 신명화와의 약속을 칼 같이 지킨 ‘의리남’이었다. 우선 그는 아내보 다 자신의 학문이 짧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앞에서도 밝혔지만 신사임당이 여성으로서 역사에 우뚝 이름을 남길 수 있었던 데는 남편 이원수의 공도 상당히 크다 할 수 있겠다. 남편은 명문가문 출신이기는 하지만 여섯 살에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외아들로 자란 탓에 배움이 신사임당보다 한없이 짧았다. 이원수는 과부의 외아들로 학문을 가르쳐줄 만한 스승을 만나지도 못했고 타고난 기질은 놀기를 좋아하고 공부는 싫어했던 것 같다.

그런데 이원수에게는 커다란 장점 몇 가지가 있었다.

이원수는 우유부단하고 자기 주관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 같지만 장인 신명화와의 약속을 칼 같이 지킨 ‘의리남’이었다. 우선 그는 아내보 다 자신의 학문이 짧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는 너그럽고 겸손한 성품으로 모진 구석이 없는 호남이었다. 간간한 장인 신명화가 그런 점을 높이 사서 영특한 딸을 맡기게 되었는데도 모를 일이다.

장면 1
신사임당이 오죽헌에 살 때의 일이다.

신사임당은 첫아들을 낳자, 하루는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다. “사나이 대장부로 이 세상에 태어나 그러저럭 한세상 살다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름지기 사나이려면 학문을 닦아 세상에 필요한 공자의 길을 걸어야 하지 않나요? 서방님과 저는 앞으로 10년간을 기약하고 헤어져서 서방님이 학문을 닦은 뒤에 만나기로 합시다.”

신사임당의 이러한 선언은 물론

남군을 큰 인물로 만들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결심이 굳세지 못한 남군은 오죽헌에서 20리쯤 되는 성산(城山)이란 곳까지 갔다가 집으로 되돌아왔다.

그런 상황을 미리 예상했던 신사임당은 남군을 냉정하게 꾸짖었고 다음 날 다시 길을 떠나게 했다.

이틀날도 이원수는 40리쯤 되는 대관령 가마고을이라는 곳까지 갔다가 되돌아왔다. 짧은 인생에서 10년이란 세월을 너무 가혹하다는 것이 그의 변이었다. 신사임당은 짜늘한 얼굴로 말했다. “사나이 대장부가 한 번 뜻을 세우고 떠난 길을 두 번씩이나 되돌아오다니요! 장차 아이들에게 어떤 아버지로 남고 싶습니까? 주무시고 아이들이 깨기 전에 얼른 떠나세요.”

이원수의 사내대장부다운 모습은 다른데 있었다. 그는 조선시대 사대부의 일반적인 남자와과는 다른 현대적인 모습이 있었다. 그는 팔발출소리를 들어가면서도 막무가내로 아내의 재주를 광고치고 다녔고, 그것을 행복으로 여겼던 사람이었다. 역설적이게도 이원수의 이런 ‘단무지’ 같은 성격과 취향이 신사임당의 예술가로서의 자리를 보존해 주는 역할을 했다. 신사임당의 일화 가운데 다행한 그림 이야기가 있다. 율곡의 증언을 들어보자.

한양 시택으로 온 지 얼마 안 되던 때였다. 친친은 친구들에게 부인의 재예를 자랑하고 싶어서 그림을 청했는데, 모친은 난감해 했으나 남편이 계속 재촉하자 계집종을 시켜 유기쟁반을 가져오게 하였고 거기에 단칸하게 하나 그려 보였다.

- 율곡 이이, 「어머나 행장」

한마디로 이원수는 부인의 그림 솜씨를 자랑하고 싶어했고, 남에게 내세우는 걸 좋아하는 인물이었다.

장면 2
신사임당이 서울 시택에 머무는 때의 일이다.

어느 날 남편 이원수가 친구들을 우루루 몰고 들어와 집안에서 술잔치를 벌였다. 어지간히 취기가 오르자 이원수가 아내를 불렀다.

“나는 당신이 너무나 자랑스럽소. 내 벗들에게 당신의 그림 솜씨

를 한 번 보여주려.”

그러자 모든 남자들이 탄성을 질렀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신사임당은 남녀 불문하고 당대 최고의 화가로 정평이 나 있던 터였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라고 청했는데, 정작 신사임당은 난감했다. 집안은 식구가 많고 수입은 없어서 그림 그리 화선지도 한 장이 없었다. 신사임당은 시골생활이지만 강릉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은 무렵이었다.

그림을 그리 수도 안 그리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림을 그리자니 종이 없고 안 그리자니 남편의 면이 서지 않는 상황이 전개 되고 있었다.

그때 신사임당의 뇌리를 스쳐가는 아이디어가 있었다.

“부엌에 가서 다행반을 가져다오.”

신사임당은 낮은 목소리로 하녀에게 일렀다. 이윽고 다행반이 들어오고 신사임당은 날렵한 붓놀림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먹이 다 마르기를 기다렸다가 다행반에 보자기를 씌워 남자들이 있는 사람채로 들여보냈다.

“이게 뭐야?”

“그림을 그려 다행했지. 누가 또 음식을 내오라 했느냐?”

이원수가 소리치고 있을 때 여자 하인이 쟁반의 보자기를 벗겼다.

아! 먹음직한 포도송이! 포도 넣쿨!

방 안의 모든 시선이 다행반 바닷으로 모아졌다.

이원수는 조금은 부족한 사나이 같았지만 속 깊은 남편이었다. 그는 조선 최고의 여자 신사임당을 지키는 최고 최선의 보루였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능력 없는 남군, 능력 없는 아버지는 존경을 받지는 못하는 모양이다.

아들 율곡은 아버지를 그다지 존경하지 않았던 모양이다. 어린 시절 그의 눈에는 어머니를 고생시키기만 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각인되어 있었던 것 같다.

율곡은 어머니에 대한 기록, 외할머니에 대한 기록 심지어는 외할아버지 신명화에 대한 기록을 직접 썼으나 아버지나 친가에 대한 기록은 단 한 줄도 쓰지 않았다.

마음의 저울

박만진

애초부터 마음에 무게가 없으니
마음의 저울이 있을 리 만무하지

희로애락은 다 마음에서 비롯되니
몸의 저울에 덧셈을 할 수가 없지

그러나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고
새털처럼 사뭇 가벼울 때가 있지

저 소나무 한 그루 바늘잎들이
허공을 가득 움켜쥔 욕심을 보아!

대나무 숲도 아닌 창창한 세월을
초침이 잘고 잘게 시간을 쪼개지

못내 가슴앓이 하는 어리보기 사랑을
마음의 저울이 없어 그대 알지 못하나

비에 젖은 구름이 무거운 것처럼
슬픔에 젖은 마음이 무거울 뿐이지

이제 바닷가 어느 소녀의 풍선이듯
안녕, 안녕, 슬픔의 끈을 놓으려니

충남문학대상, 충청남도문화상, 현대시창작대상, 충남시인협회상본상 등의 수상 경력을 자랑하는 박만진 시인은 현재 서산시인회와 충남시인협회 회장, 한국시인협회 심의위원, 한국시낭송가협회 자문위원, 윤공강문학기념사업회 고문 등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김영희의 교육에세이



김영희

끝끝내임마국어연구소대표

우리는 남과 관계를 맺으며 산다. 사는 동안 갈등으로 멀어지기도 하고 때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그 반대 경우를 마주한다. 누구든 나에게 미움받는 것을 받기 싫을 것이다. 그 정도가 지나친 사람도 종종 본다. 남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끊임없는 애정을 요구하곤 한다. 그런 행동을 정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지나친 애정, 관심을 요구한다거나 작은 행동에도 크게 실망하고 화를 내는 등의 반응을 보인다면 애정 결핍 증상이 아닐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끈을 과감히 자르지 못할 경우 온가죽을 병들게 하고 대립할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며칠 전 영화 “세 자매”를 보았다. 코로나로 자주 못보던 친구 몇 명이 함께 한 자리

였다. 영화는 대체로 어둡고 우울했다. 성인이 된 세 자매의 삶이 성장 과정과 연계되어 발목을 잡는다. 1남 3녀의 남매는 어린 시절 아버지로 부터 심한 구타를 당한다. 게다가 어머니 무반응으로 기댈 언덕조차 없다. 자녀들은 심적 방황아 신세로 삶을 이어간다. 성인이 된 이후까지 제아무리 개선하려 노력해도 좀처럼 애정의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는다. 과거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채 그들은 평생 마음의 짐을 지고 살아간다. 마치 시지프스의 삶과도 같다. 시지프스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이다. 신들을 기만한 죄로 커다란 바위를 산꼭대기로 밀어 올리는 벌에 처해진다. 그러나 이 바위는 정상 근처에 다다르면 다시 아래로 굴러떨어진다. 시지프스는 영원히 되풀이되는 형벌을 받게 된 것이다. 세 자매 가족의 삶도 그 형국이라 볼 수 있다.

이미 상노인이 된 아버지의 생일날, 모처럼 온 가족이 식사 모임을 갖는다. 목사님을 모시고 식사 중에 막내 남동생의 돌발행동은 이 영화의 압권이다. 그가 갑자기 목사님 발그릇을 향해 오줌을 갈긴다. 자기중심적이며 실생활에도 적용하지 못하는 그는 이미 시한폭탄을 마음에 품은 채 돌출행위를 서슴없이 한다. 어쩔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식사 장소가 갑자기 난장판이 되고 딸들은 아버지에게 그동안 말 못하던 사과를 요구한다. 하지만 아버지는 묵묵히 담뱃재 창가 쪽으로 가 스스로 유리창에 이마를 마구 부딪힌다. 시뻘건 이마의 피가 얼굴로 줄줄 흘러내린다. 이 가족 하나 하나는 애정 결핍 증상에 시달리며 감정의 극한 상태까지 이르렀음을 상징한다.

누구나 사랑받고 마음을 자유롭게 펼치며 살길 원한다. 마음에 제동을 걸고 발목을 잡는 경우 그 원인이 무엇일까. 바로 억압된 주변 환경일 것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치유의 길을 모색할지 고민해야 한다. 코로나로 세계가 힘들어도 면역제를 개발해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의지로 대처해 나갔듯 말이다. 인간은 누구나 불완전한 존재다. 때문에 쉽게 깨지고 상처받곤 한다. 그것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자.

영화 ‘미나리’로 윤여정 씨가 2021년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 여우조연상을 수상했다. 102년 한국 영화상 최초라고 한다. 국위 선양을 한 그녀가 정말 자랑스롭다. 하지만 그녀에게도 아픈 가족사가 있다. 윤여정 씨와 조연남 씨 사이에는 2명의 아들이 있다. 이혼한 윤여정 씨가 힘

든 상황에서 두 자녀를 양육해야 했다. 큰아들은 미국의 명문대 콜롬비아 대학을 졸업 후 미국 ABC뉴스팀에서 근무하다 힘이 들어 퇴사했다고 한다. 그후 본인이 원하는 패션업계 종사한다. 둘째 아들은 애정결핍이 원인으로 틱(tic) 장애가 있었다. 틱이란 갑작스럽고 빠르게 반복적, 비의도적, 상동적인 움직임이나 소리를 말한다. 단순 운동 틱은 순간적인 눈 깜박임, 목 경련, 얼굴 찡그림이나 어깨 으쓱임 등으로 나타난다. 윤여정 씨가 틱 장애인 둘째 아들에게 너무 미안해 많이 울었다고 한다. 애정 결핍이라는 길진 고난의 끈을 과감하게 벗어 버릴 때 그 울타리에서 자유로워지리라. 남자가 가정을 이뤄 자식을 낳고 사회인이 될 때까지 기르고 보살핀다는 것은 하나의 꽃을 피우고 씨를 맺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 과정에서 좋은 부모란 아이에게 정신적인 지주가 되며 소통과 공감, 따스한 반응을 나누며 사랑의 버팀목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데 사랑과 배려의 자양분은 매우 크다. 부모의 재산과 학력의 여부가 아닌 신뢰와 관심, 따스한 사랑은 말할 나위조차 없다. 우리 모두에게 사랑이 아직도 필요한 이유다.